

제 83 호

연중제 13 주일

(교황주일)

1974. 6.30.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강론】

교황청과 성 베드로의 후계자 로마 교황

김영구 신부



바티칸 시국의 원수(元首)이며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의 정식 칭호는 <로마 주교, 예수그리스도의 대리, 사도 수장(首長)의 후계자, 전 가톨릭 교회의 수장, 서 유럽 총대주교, 이탈리아 수좌 대주교(首座), 로마 관구(管區) 대주교 및 수도 대주교, 바티칸 시국 주권자>이다. 이를 최고 교문인 추기경단(樞機卿團)과 교황 또는 추기경을 장관으로 하는 중앙 행정기관인 로마 교황청이 보좌하고 있다.

교황청은 12개의 성성(聖省), 세 법원, 관서(官署), 궁내부(宮內部), 약 13개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무성(國務省)장관이 이를 통괄한다.

성서에 없는 천주교회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서기 67년 어느날 청년 시대에 갈리리호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어떤 늙은이가 꼴려 내렸다. 그는 너무나도 그리스도교를 열심히 전도했다고 로마 관헌에게 잡혀서 +자가에 달아 매어 죽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거꾸로 매달아 죽게해 달래서 그의 소원을 이뤄 주었다고 한다. 이 순교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의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로서 성 바울과 함께 로마에 천주교를 전도했다. 비로의 옥외극장(屋外劇場)의 바로 밖에는 불에 타 죽은 학살된 천주교인 시체를 묻은 묘지가 있는데 베드로의 시체도 거기 던져졌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가 죽음으로써 많은 신자가 생겼고 250년뒤 (313)년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황 자신도 개종하여 가톨릭 신자가 되어 곧 베드로의 무덤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교회는 성 베드로 대 성전이라고 불리며 1100년 동안 서 있었다. 이 성전은 역대 교황이 다스리고 또 온 유럽의 왕이나 황제가 성 베드로의 무덤 앞에서 대관식을 올리게 되었다. 1450년 무렵부터 이역사적인 건물은 매우 노후하기 시작하여 모두 깨끗히 허물어 1506년, 그때의 법왕 율리우스 2세는 허문 자리에 그전의 2배나 되는 새 성전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바티칸 중전 안에 있는 성 베드로 대 성전이다.

이 성 베드로 성전은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건축으로써 장엄하기 이를데 없다. 특히 이 건축의 중심이 되는 지름(圓둘레) 41m의 중앙 돔은 미켈란젤로의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그가 70살을 넘은 뒤 손을 댈 것이다. 이 돔(半球形 건축법에 Done)은 108m의 높이에 있는데 그 위에 24m의 탑이 서 있으며 그 끝에 +자가가 있다. 이 돔은 벨 위까지 오를 수 있는데 여기 오르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를 기분이다.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성부의 성수무궁 하시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기 바라오며, 성심껏 성금을 올려 교황사업에 협력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

* 이 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만 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을 부르라.

(2)말씀의 전례

□**제1독서** (열왕 전 19, 16b. 19-21, 경향잡지 6월호 P25)

엘리세오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

□**증계송** ◎주여, 당신은 나의 기업이오이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한 기꺼움을 당신 오른 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 주시리이다.

□**제2독서** (갈라디아 4, 31b-5, 1. 13-18, 성서 P. 434)

너희는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당신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나이다.

□**복음** (루가 9 : 51-62, 성서 P. 154)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였다. 어디로 가시든 지 당신을 따르리라.

□신자들의 기도

1.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기르시는 주여, 당신의 대리자인 교황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에게 시대의 정표를 제대로 읽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주여.....

2. 주여,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교황 바오로 6세에게 건강을 주소서. ◎

3. 주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하오니 이 더위에 서로 짜증내지않고 화목을 이루어 가게 인도하소서. + 주여 바오로, 당신이 친히 세우신 목자 바오로 6세로 하여금 말과 모범으로 우리를 보살피다가, 맡겨진 양무리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아멘.

(3)성찬의 전례

성찬식. 불린

□**영성체송** 야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의 온갖 것도 그 이름 찬양하라.

(4)폐회식

* 숲정이 산책 *





6월에 심은 마음

김재욱(라파엘)

녹음이 짙어진 6월이 오면 마음도 푸르러진다. 열록소 짙은 물이 혈관에 스미어 은룡 푸른 물이 몸을 질하고 있는 것만 같다.

6월은 꿈의 계절이다. 태양의 열빛이 쏟아지고 꽃들이 성그리히 피어나는 호홉 속에서 정서를 먹고 살아 온 수양 버들의 나래춤이 한들거리고, 요염히 대지를 까는 보름 달의 정겨움도 한층 나그네의 실움을 셋게 하리라.

멀리만 사라졌던 추억의 그리움을 부르고 희열의 상념에 싸이어 그늘밑을 거닐고 싶은 6월의 석양은, 아롱진 어린애의 무치개 같은 꿈이라도 꾸고 싶은 계절이 아니던가!

6월의 여인들은, 그리고 6월의 사내들은 부부는 6월의 녹음에 짙은 푸름의 생리로 생을 꿈하며 내일에 설계를 스케치하려 하지 않으려가!

푸른 물이 뚝뚝 들는 6월의 녹음은 망상과 허영과 허탈을 셋게 하고 건전한 피의 순환을 재생하여 정신 박약의 허실병에 앞선 자를, 생의 의욕을 잃고 방탕하는 자를 깨울 것이지 녹음의 아침을 호홉하여 보라. 역사의 나이 바퀴를 감고 역점의 침묵을 피사된 육중한 아침의 푸른 산이 가슴에 안겨지리라.

동해 바다 치솟는 해, 그 햇빛은 지열을 사르고 6월에 타리라!

은룡 푸르기만한 6월, 그 6월 속에 내가 사는 것은 성성한 삶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어머니의 사랑 같은 가슴이 온 누리에 깔려 별빛처럼 초롱한 마음이 역사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으로 오르는 마음과 바다로 향한 마음들이 멍멍을 내리는 시간을 달래며 하루의 일과에 고됨을 너는 것도 녹음의 삶이 한창인 6월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6월은 성찬의 계절이다. 이마의 주름도 반석처럼 반반 해지고 마음의 제목도 바다처럼 양양해지는 마음이 녹음과 함께 자라고, 아침으로 다름질치는 시간의 계단을 힘있게 밟는다.

내일에 희망을 심고, 모판에 씨앗을 뿌린 자라듯만 한 굵직한 농군의 손이 모내기 일손으로 한참 바쁜 6월의 계절은, 구슬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쌀이 여는 나무를 위해 정성을 다 모아 흙과 반죽하는 삶도 6월이 주는 꿈의 부푼 이미지이리라!

파라솔을 펴듯 마음을 펴고 푸른 하늘이 덮인 대지의 위에서 눈을 들어 태양을 보고 밤이면 별을 보며 불타는 이상의 나래를 퍼덕여 보라! 6월로 가는 길은 분명 푸른 포도(葡萄)의 길이 트이고, 내일로 가는 아름다운 동산의 메아리가 잠을 깨우리라.

올해 따라 6월에 단오가 담겨져 있으니 단오절에 베풀는 민속놀이의 낭만이 또한 유선녀의 치마자락에 고운 폭선을 긋겠다. 자락마다 어찌쁜 입술로 하늘을 나르며, 6월의 창공을 내달는 그네놀이의 시로 꾸민 음률이 하늘에 나무끼면 푸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눈짓에 별이 종종 하겠다.

6월에 사는 마음은 기쁘다. 6월에 여인들과 사내들은 녹음으로 가라. 녹음은 그대들의 꿈을 아른답게 가꾸리라. 그리고 그대들을 살찌도록 노래를 부를라 주리라.
(시인, 해성 중·교 교사)



우리의 각오

박수배(안드레아)

며칠전 본당신부님께서 새 임지로 떠나셨다. 하기야 언젠가는 가실 분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좌잡한 심정일 뿐이다. 떠나시는 날, 많은 신자들의 눈엔 눈물이 글썽였다. 그래도 3년이나 같이 지내시던 분이었으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가시는 분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음을 그리자니 더욱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새 신부님이 오셨다. 우리 모두들은 기쁜 마음으로 신부님을 환영했다. 제대 앞에서 간단한 기도를 끝내고, 신부님께서서는 교우들이 서로 협력하여 본당을 열심히 가꾸어 나가자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신부님의 눈빛은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감을 주셨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다 그러는가 보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주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에게—한 일치점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기억없는 이별이 아니니까. 오히려 떠나야만 하는 그 자체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결코 원망할 수 없다.

신부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공동체가 머무르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나 개인을 생각하기에 앞서 언제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공동체 정신, 그 생활,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삭막하기만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누룩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공동체 의식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우리 앞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영원한 진리, “서로 사랑 하시오”라는 가르침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새로 오신 신부님을 모시고, 보다더 노력하여 참신한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어떤 신부님이 가시고 오시던 간에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김계 본당. 필알 회원)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유교연 중앙 시장통 (전화 ㉠4577)

교향 여러분의 집

스타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북, 동아여관 앞 (전화 ㉠6094)

☆추억의 집☆

푸른 사진관

이준영(모세)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6059)

□양지 쪽□



아름다운 여자

최 신 자 (말가리다)

「내내의 공개장」이라는 어느 여성잡지의 부록을 읽었습니다.

사회각계 인사들의 아내에 대한 바람이 적혀있는 것으로 거의가 아내가 아름답기를 바라고 있었고, 조금씩은 모두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란 반드시 얼굴이나 몸매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나 성품의 아름다움을 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부들에 대한 기대는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 같았고, 그러나 그 큰 기대를 잘 충족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 위하여는 아내와 엄마와 며느리로서의 임무를 남보다 더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웃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므로써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찾지 못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때 여자는 아름다우며, 양장점이나 미장원 문을 두드리기에 앞서 욕심을 버리며, 사랑의 화신처럼 사랑을 하며,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많아야 하며, 말없이 실천하고 그 공을 내세우지 않으므로써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되도록 많이 용서하고, 조금만 애교스럽게 화를 내도록하고, 적당히 영리하고, 때로는 바보일 수 있었으면 그 아름다움은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자녀와 남편과 가정을 지킨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나아가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않아야겠습니다. 틈을 내어 교양강좌를 듣는다거나 요리강습을 받는 것도, 그리고 사회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회참여를 흔히 똑똑한 여자, 잘난 체하는 여성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자가기 때문에 외양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참다운 아름다움은 역시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삶일 망정 즐거운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가꾸기 위해 집안 뜰에 채소 한 포기 가꾸는 정성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며,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랑의 화신으로서, 미움이 많아질까 두려워지는 이 사회에, 파문처럼 사랑을 던지는 아름다움을 끝없이 퍼지게 합시다.

(주부)

※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좋은 글을 써주신 최신자여자사(전동분당)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십이 (50) 김병오 6.30

오늘이 교향주일이지? 그래 우리 교향끼 인사하자.

교향님 여흥철에 건강하세요!

한가지 빠진것이 있구나.

우리나라 보신탄이 여흥철에 좋대요.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범 석규, 전화 ②3498)

매주 일요일 오후3시...이삭회 (성경, 성가, 전전포크송)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매주 월~목 7시...영어교실

〃 목요일 8시...「목요일 밤에」 (남 여 젊은이들의 대화)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 가톨릭 센터와 J.O.C.)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이주간의 성경

- 7. 1<월> 독서(아모 2:6-10 13-16)
복음(마태오 8:18-22, 성서 P.17)
- 2<화> 독서(아모 3:1-8. 4:11-12)
복음(마태오 8:23-27, 성서 P.17)
- 3<수> 성 토마 사도 축일
독서(에페소 2:19-22, 성서 P.440)
복음(요한 20:24-29, 성서 P.260)
- 4<목> 독서(아모 7:10-17)
복음(마태오 9:1-8, 성서 P.18)

- 5<금> 복자 안드레아 김 대건 사제 순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대추일
독서(역후 24:18-22)
(로마서 5:1-5, 성서 P.345)
복음(마태오 10:17-22, 성서 P.21)
- 6<토> 복자 김 신부 외부 행사
독서(이사66:10-14C)
(갈라디아 6:14-18, 성서 P.436)
복음(루가 10:1-9, 성서 P.154)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번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사

●동문 베거리(풍남동 1가 17)
전화 ②5986
임 도민고(정원)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찹쌀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미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 (②6589)

미미 예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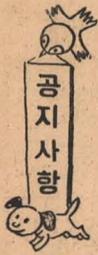
남문 옆 (②3915)
김 민주(가타리나)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업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② 6691 교활85 번)

제 4 지구 6개 분당 소식



1. 오늘 교황주일로 특별 헌금 있음.
2. 서품식 (7월 3일<수>, 오전 10시반, 중앙성당)
 - ① 사제품...정승현(부안), 박종근(중앙), 서석구(장계)
 - ② 부제품...강인찬(서학동), 김동준(동이리), 박중신(합열), 범선배(전동), 이태주(여수), 한봉섭(수류), 김기수(삼례)
 - ③ 시종직...김병환(수류), 문규현(중앙), 이종원(전동), 강덕창(중앙), 왕수해(김제), 김진석(남원), 한정상(여산)
 - ④ 독서직...왕수해(김제), 나궁렬(월명동), 전대복(삼례), 한기호(전동), 소순형(전동), 성태수(둔율동), 김윤섭(합열), 김태윤(중앙), 김준호(김제), 이순성(전동), 이재철(여산)
3. 가톨릭 중·고등 학생회 프로그램 연구회 (7월 7일<일> 오후 2시, 해성학교)
4. 전주지구 가톨릭 학생 연합회 회장단 회의
 때; 오늘 오후 3시. 곳; 노송동 성당.
 ※ 각 분당 회장단 (회장·남녀 부회장)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5. 성 프란치스코 제속 전주 방지거 형제회 (7월 6일<토>)
 - ① 심의회; 오전 10시
 - ② 수련; 오후 1시반
 - ③ 월례회; 오후 3시
6. 목요회 월례회 (4일<목> 하오 7시반, 장소; 가톨릭 센터)
 ※ 회원은 가족을 동반하여 필히 시간 엄수 참석을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사도 회장 이복석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미사시간 변경; (7월 1일~6일)
 월, 수요일(아침 6시), 화, 목요일(저녁 7시반),
 금요일(아침 10시, 저녁 8시),
 토요일(아침 6시, 저녁 5시)
2. 사제 서품식; (7월 3일 오전 10시반)
 분당 소속 박종근(안드레아) 신부님의 서품식을 중
 심으로 축하하며 많은 기구 드립니다.
3. 첫미사 및 축하식; (7월 7일 오전 10시)
 많은 교우들의 참석과 축하를 바랍니다.
4. 서석구 보좌신부님 환영; (7월 7일 공식 미사후)
 충심으로 환영하며, 많은 기구 드립니다.
5.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 공식 미사후)
6. 성심부녀회 월례회; (7월 5일(금) 어머니 미사후)
7.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8. 교무금 납부 요망; 분당 유지비가 부족되어 운영난
 에 봉착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로써 하느님 사업
 에 헌신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38,424원, 감사합니다.

1. 오늘 교황주일 (특별 헌금 있음)
2. 사제 서품 (3<수> 오전 10시반; 중앙성당)
 28분의 서품식에 많은 기도와 예물에 적극 협조합사
 다. 평생을 몸과 마음을 다 천주님께 바쳐 품을 받
 는 이 분들에게 굳은 신앙과 건강을 주시라고 기도
 합시다. -2(화)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람.
 <분당 신자들의 빠짐없는 협조 바람>
3.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지난 주일 미사 참례자수
 10시; 256명. 7시반; 67명 계 323명
 지난 주 성미 1말 5되, 누계 289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47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프란치스코회 제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일)
3. 교황 주입니다. (기도와 특별헌금 봉헌 요망)
4. 노송 성당 신축에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만원; 무명씨. 천 5백원; 무명씨. 천원; 김순이(테
 레사). 박귀남(모니까). 소인규(안나)
 □지난 주 신축기금 14,500원, 누계 1,457,197원
 지난 주 신축 성미 2말, 누계 183말.
 지난 주일 봉헌금 14,540원, 감사합니다.

1.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교황을 위해서 기도와 헌금에 인색치 맙시다.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3. 분당에서 서품 2분(중앙성당 3(수)10시반)
 상관 강인찬; 부제품. 분당 한기호; 독서직.
 두분을 위해 많은 기구와 참례를 요망합니다.
4. 성경연구 동지회원 (많은 가입 바람)
5. 신용조합 소식
 부이사장 방 방지거(기쁨)씨-부이사장 사임
 신임부이사-김안드레아(한기)씨 당선.
 □지난 주일 봉헌금 9,866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송재진

1.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회원들의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2. "술절이" 한 가정에 한부씩
 정성껏 읽어 주시고 유의사항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 애령회 기금 조성 성미
 현재 거치지 않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애령회 성미 1말 4되 1홉, 현금 2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7,497원, 감사합니다.

1. 주일 학교 일일교장 (이 현재 구역장님).
2. 방지거 삼희 글나라 형제회 (오늘 1시반)
3. 보좌 신부, 부제 환영식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4. 교황 주일 (오늘 교황주일로써 특별헌금 있음)
5. 재정부 소식 (교무금 미납하신 분, 속히 납부요망)
 ☆축 서품
 정승현; 신부, 범선배; 부제. 이종원; 시종직.
 한기호, 소순형, 이순성; 독서직.
 ※ 품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동 교우일동
 □지난 주 봉헌금 40,050원, 감사합니다.